

컴퓨터 게임중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사회는 마땅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은둔족'이 늘어나 새로운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PC방이나 카페 등에서 컴퓨터 게임에만 몇 날 며칠을 몰입해 있는 청소년들이 상당수 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 사람은 누구나 즐거움(쾌락)을 추구하는 존재이다.

이런 점에서 청소년들이 컴퓨터 게임을 통해서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특정한 것에 대한 즐거움의 추구나 몰입이 지나쳐 청소년들 자신의 삶의 균형자세를 잃게 된다면 이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컴퓨터 게임에서 청소년들에게 제공하는 즐거움은 대부분 말초적인 것이다. 즐거움의 질 자체가 결코 높다고 할 수 없다.

컴퓨터 게임을 통해 얻는 즐거움은 항상 더 많은 만족을 요구하게 마련이다. 이러한 유의 즐거움이 쉽게 증폭 증세를 유발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컴퓨터 게임에 청소년들이 몰입하는 이유 중 하나는 컴퓨터 게임이 일종의 가상현실(cyber reality)속에서 실행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가상현실은 실제의 현실과는 달리 과정



불자 세상보기

고진호
동국대 교육학과 교수

'은둔'하는 청소년들

이 생략되고 결과가 중시되는 경향이 있다. 실제의 현실과는 달리 가상현실에서는 윤리적, 법적 제재가 약하고, 개인의 책임의식도 희박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가상의 세계에서 청소년들은 현실의 '자아(self)'와는 다른 '가상적 자아(cyber self)'를 갖게 된다.

불행하게도 컴퓨터 게임중독증이 심각한 청소년들의 경우 자아와 가상적 자아의 경계를 인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현실과 비현실, 가상과 실상을 혼동하는 증세를 보임으로써 사회문제화 되는 경우를 종종 목격하게 된다.

그러나 디지털 혁명의 시대에 살면서, 현실적으로 인터넷상에서 널리 유포, 실행되고 있는 컴퓨터 게임과 같은 청소년 문화는 무조건적으로 부정하거나 배척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오늘날 부모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교육적 지혜라고 할 수 있다.

지혜는 주어진 현실을 무조건적으로 부정하려는 마음 '컴퓨터 게임이 청소년 문화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어' 혹은 변별하려는 마음 '컴퓨터 게임을 혼동하는 증세를 보임으로써 사회문제화 되는 경우를 종종 목격하게 된다.'

거야'라는 식의 시비를 가리려는 마음에서는 싹트지 않는다.

교육적 지혜는 탁월한 교육이론가 보다는 오히려 지식을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지혜로운 부모들의 교육행위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더 많다.

실제로 필자는 몇 년 전 게임중독에 걸린 아들을 둔 아버지의 이야기를 감명깊게 들은 적이 있다. 지면 제약으로 자세한 이야기를 소개하지는 못하지만, 지금까지 기억이 남는 것은 나중에 아버지가 컴퓨터 게임을 아들이보다 더 좋아하게 되었고, 자연히 아들과 많은 대화의 시간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어느 날 컴퓨터 게임을 너무 좋아하게 된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아들의 말을 들었을 때, 그 아들이 그렇게 믿음직하고, 사랑스럽게 느껴질 수 없더라는 것이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교육의 지혜도 불교에서 추구하는 지혜와 큰 차이가 없다고 본다. 교육적 지혜는 현실을 사실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발전적으로 승화하려는 마음과 태도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중도를 지키는 교육적 지혜는 디지털 시대에 요청되는 교육적 방식 가운데에서도 가장 이상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불자의 눈

예부터 선원에서는 음력 설달 초하루부터 8일 성도재일까지 용맹정진을 하는 전통이 있다. 이번 부처님 성도절에도 몇몇 선원에서 정진의 고삐를 다잡아 사상결단을 내리려는 눈푸른 남자들이 분명 있을 것이다.

조계종은 정치적 시련을 겪으면서도 이러한 초연의 자세로 '실참실구'의 수행에 매진하고 있는 수행자들의 확고한 기풍을 유지하고 있다. 이것은 수행자가, 이른바 선지식이나 큰절의 어느 누구를 믿고 출가한 것이 아니라, 오직 부처님을 믿고 그 가르침을 수행하여 참된 자비를 발견하기 위해 출가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들을 공경하고 공양하며 따르는 신도들도 마찬가지다. 참된 수행이란 누구에게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각자가 발심하여 수행하는 것이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온갖 고행으로 인욕행을 하며 수행하여 깨닫고 보니 이것이 곧 과거 일체 부처님들의 길이었다고

부처님 성도절, 수행점점의 날

어떤 중생도 이 길을 수행하여 깨닫지 못할 이가 하나도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전도의 길에 나서지 않았는가?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닫고 보니 고통 받는 중생들의 모습이 너무 괴로워서 병든 외자식을 보는 아픈 마음 같이 중생을 위해 해탈의 길을 가르쳐셨다.

성불에는 출가와 재가가 다르지 않다. 다만 출가수행자는 일반적인 세상 사람이 즐기는 애욕을 끊고 수행에 전념하는 사람이며, 재가는 가정과 사회의 인연 속에서 수행의 길을 함께 하는 사람이다. 우리 출가·재가의 모든 불자들이 부처님의 중생 염려하는 간절한 마음을 믿고 그 가르침대로 수행하면 반드시 부처님의 영원을 우리들의 염원이 되어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부처님 성도절은 가장 기쁜 날이다. 우리 불자들의 교조이신 석가모니가 온 우주법계의 진리를 깨달아 부처님 되신 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처님의 깨달음은 비를 쫓아 정진하지 않고 허매다 보내는 의례적인 성도절이 되어서는 성도절을 맞는 의미가 없다. 이번 성도절을 계기로 올 한해도 초발심으로 돌아가 부처님의 영원을 나의 진실된 염원으로 삼아 깨달음을 향해 실천수행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들었다 남녀평등
남녀는 일체 평등하다. 하늘은 아버지이고 땅은 어머니임으로 천지의 낳은 바이니 무슨 다를 것이 있겠는가? <보문품경>
통계청과 여성가족부가 12월 27일 발표한 '2004 생활시간조사 종합분석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20~74세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이 하루 평균 46분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비해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은 하루 4시간 9분으로 조사돼 남녀의 가사노동 부담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독자의 소리-이렇게 생각한다
현대불교의 군포교 캠페인을 보고
오랜만에 반가운 소식을 접했다. <현대불교> 1면에 난 '2006군포교 합시다'를 봤기 때문이다. 책박한 군포교 현실에서 한 줄기 단비처럼 반갑기만 하다.

독자여러분의 의견을 e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조용수 기자, pressphoto@buddhapia.com)
자칫 상대는 알아주지도 않는데 혼자만 종교화합이라는 명분으로 시간과 정세를 낭비하지 않았기를 간절히 바란다.

생명체를 컨트롤하는 파워자기장 척추클리닉
1. 우두와 인체내 자기장의 원리와 2. 척추와 12장부의 상호작용을 설명했습니다. 3. 침을 수 없는 통증이 있는데도 병원에서 관측하는 진단결과가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통증이 있다는 것은 내 몸에 이상 징후가 있으므로 반드시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해야 합니다.

"운명"을 읽고 나면 성공이 보인다!!!
마음과 운명을 바꾸어 주는 책 ○ 오희규 실화소설 운명
주요수룩내음
중합이 이야기 성기가 말을 만들어요 땀이 미쳐가고 있어요 의처증 이야기 바뀐 놓고 생각하기 실수의 흔적 처제와의 불륜 육체란 무엇인가? 입시 이야기 성형수술 이야기 제발 시집가고 싶어요 세번 결혼한 검사님 임대와 세스의 비밀 남편과 제발 헤어지게 해주세요 성공하는 사람은 다르다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노처녀의 사랑이야기 남자는 정력을 주체할 수 없어요 자신의 처지를 겸허히 인정하라 운명을 바꾸는 법